



이라크전쟁 후의 중동 IT비즈니스

이지명 | LG 경제연구원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로 중동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위축되었던 중동지역의 소비심리는 전쟁 종결로 인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중동 지역 바이어들의 한국 방문도 재개돼 수출 관련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있다.

이라크의 내부 정치 정세는 혼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미군 주도 아래 복구 비즈니스가 시작됐다.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의 과거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아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에는 중동지역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우리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1~3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 중동 수출은 전년 동기비로 12.9%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쟁 때문에 억제되어 왔던 중동 산유국들의 수입수요는 이라크전 종식 이후에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 수입 확대에 의해 재정수지가 개선되

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정보 통신 인프라 기반 구축 투자도 확대 될 가능성이 있으며, IT 관련 수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 복구수요 점진적 가시화, 장기적 CDMA 수요 기대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상수도, 학교, 병원, 교량, 도로, 전력, 방송, 통신 등 인프라 기반의 복구 비즈니스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복구 차원의 공사는 미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 기업들도 각종 기자재의 납품이나 하청형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군이 상당 기간 이라크에 주둔할 것으로 보여 미군이 필요로 하는 PC 등의 IT관련 장비 비즈니스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외교평의회는 7.5만 명의 병력을 전제로 전후의 미군 주둔 비용이 연간 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이라크 정치정세의 혼란스러운 현황을 고려할 경우 10만 명을 넘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친미 인사를 규합하여 이라크인 과도정부를 발족시킬 계획이며, 2년 정도 후에는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과도기에는 미국이 주도 가 되어 각 행정기관의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수요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라크 행정기관

은 전쟁과 약탈 과정에서 집기나 통신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케이블 등의 수요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인에 의한 공식적 정부가 수립되어야 산업부문에서의 건설 수요나 투자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의 구상이 각 종파간의 갈등이나 이라크인들의 반미 감정 확산 등을 고려할 경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휴대폰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동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럽의 GSM 방식 대신 CDMA 방식이 이라크에서 보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기업으로서는 단말기와 함께 시스템 관련 시장의 개척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는 대외채무가 620억 달러~1,300억 달러에 달하고 걸프전의 배상금이 2,000억 달러 이상,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배상금 약 1,000억 달러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과중 채무국이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액은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복구수요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거의 10년간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라크가 석유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라크 정부의 대외 지불 능력은 대단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에 참여할 경우에는 당분간 미국이나 UN 등의 국제기관과 직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중동 정세의 상대적 안정화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한편, 기타 중동 지역 정세는 미국이 당분간 시리아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어느 정도 자제할 것으로 보여 일단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이라크 정치 정세의 안정화에 계속 고전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의 최대 이슬람 세력인 '시아파'와 이란의 연계를 빌미로 이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사우디 출신자가 9.11 테러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긴장된 미국과 사우디 관계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의 불만이었던 미군의 사우디 주둔 문제가 후세인 정권 붕괴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이라크의 위협이 없어짐으로써 사우디 기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미국이 이라크 정치의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어나 가능한 일이며, 만약 이라크에서 반미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등장할 경우에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에도 압박을 가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결국 이라크전 이후의 중동 정세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동지역에서의 반미 감정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중동 각국의 주식시장은 이라크 패배와 동시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석유수출 확대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중동 산유국에 대한 단기적 IT수출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 부문의 경우 중동 산유국들도 점차 시장개방화, 민영화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란은 2002년 기준으로 200만대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보유대수를 2005년까지 1,0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와 경쟁 촉진에 나서고 있다. 유선, 인터넷 접속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의 진출이 허용될 추세에 있다. 한편, 사우디의 경우도 독점 기업이었던 사우디 텔레콤의 주식 30%를 민간에게 매각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는 2004년, 고정전화는 2008년에 자유화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IT로 무장된 미군 앞에서 쉽게 무너진 이라크군을 바라본 중동사람들은 IT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NN에 맞선 중동계 알자지라 방송을 지지하면서 IT를 활용한 정보전의 중요성도 실감하게 되었다. 이것이 각국 정부의 IT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디지털 방송, 위성방송 관련 장비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의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의 비산유국의 경우 관광수입의 감소와 유가급등의 타격

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수요 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관광 수입 감소, 수에즈 운하 수입 감소의 영향과 함께 이라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해 왔던 원유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금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우려도 있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도 이집트와 함께 대이라크 수출의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 비즈니스의 가능성

중동 지역의 IT기반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국 브라운 대학의 '세계 전자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각국의 전자정부화 수준은 바레인, 카타르가 52%(100%가 최고)로 12위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이집트 92위(41%), UAE와 사우디가 123위(38%), 쿠웨이트 164위(32%)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 2003년에는 3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역내 무역의 온라인화도 4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UAE의 경우 인터넷 카페가 200개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전자정부에 대한 기반 조성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라크의 군사적인 위협이 소멸됨으로써 쿠웨이트도 낙후된 IT기반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향후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의 기존 상권에 도전하면서 대체 공급자로 선택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중동 비즈니스 추진 시에는 미국기술이나 상표를 되도록 강조하지 않는 자세가 요망된다.

